

KRIVET Issue Brief

2023

257호

발행인 류장수 | 발행일 2023년 5월 18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다문화청소년의 자립기술 및 진로성숙도 수준

다문화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정책적 지원이 미비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조사 결과,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성숙도는 일반 청소년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었으며,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에 비하여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자립기술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남. 다문화청소년의 희망 직업은 IT 전문가(7.6%), 교사(7.1%) 및 회사원(7.1%) 순으로 나타났고, 총 53가지 종류의 직업이 보고되어 다문화청소년의 희망 직업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함. 다문화청소년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의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에 기반한 진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주]

이 글은 '변숙영 외., (2022), 「취약 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 방안(2022): 다문화청소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췌, 재정리함

다문화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진로 특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및 취업 지원 방안 설계가 필요

- 학령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 비중은 최근 5년간 매해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다문화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임
 - 선행연구 검토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이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수준과 태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자립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진로성숙도, 주요 진로희망, 그리고 진로탐색준비행동 특성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 방안(2022): 다문화청소년」

- 분석 대상: 17-24세 다문화청소년(국내 출생자/중도 입국자) 238명(조사기간: 2022.7.8.-9.2.)

<표 1> 다문화청소년 응답자 일반적 특성(N=238)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성별	남자	124	52.1	출생지	국내 출생	131	55.0
	여자	114	47.9		중도 입국	107	45.0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한국 사람이다	118	49.6	가정 형편 (경제수준) 인식	어려운 편임	44	18.5
	본국 사람(외국인 부모님 나라사람이다)	64	26.9		보통이다	140	58.8
	한국 사람이기도 본국 사람이기도 하다	40	16.8		잘 사는 편임	46	19.3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다	14	5.9		잘 모르겠음	8	3.4
	기타	2	0.8		못하는 편이다	47	19.7
아버지의 한국어 실력	못하는 편이다	40	16.8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보통이다	68	28.6
	보통이다	30	12.6		잘하는 편이다	103	43.3
	잘하는 편이다	47	19.7		해당 사항 없음	20	8.4
	해당 사항 없음	121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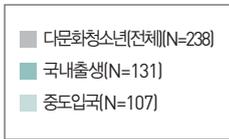
(단위: 명, %)



KRIVET 모바일홈

각주

- 1) 자립기술은 김지선 외 3인(2018)이 개발한 자립기술척도를 다문화청소년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자립 준비에 필요 기술을 측정함. ① 일상생활기술: 의식주 관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술, ② 자기보호기술: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 ③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 지역 사회의 자원이나 공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④ 돈 관리 기술: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 ⑤ 사회적 기술: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 ⑥ 진로탐색: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
- 2) 응답 범위는 1점(전혀 아니다)~4점(매우 그렇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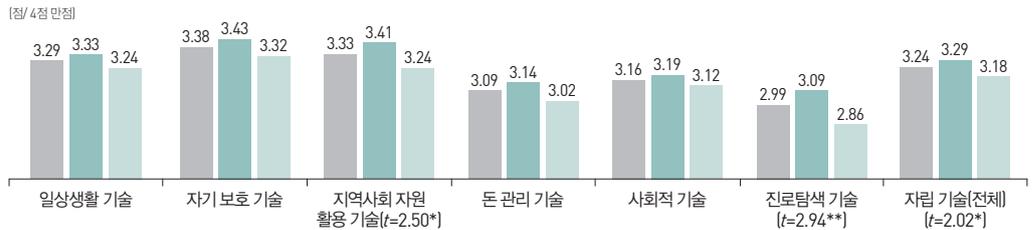


주 * $p<0.05$, ** $p<0.01$

02 다문화청소년의 자립 기술¹⁾ 수준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자립 기술 수준은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자립 기술 수준(3.24점)은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남(중간값 2.50기준²⁾)
 - 구체적인 자립기술 중 '자기 보호 기술'(3.38점)'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3.33점)'일상생활 기술'(3.29점)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고, '진로탐색 기술'(2.99점)이 가장 낮게 보고됨
- 국내외 출생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자립 기술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 자립 기술 수준(3.18점)이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3.29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t=2.02, p<0.05$)
 - 특히 세부 자립 기술 중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t=2.50, p<0.05$)과 '진로탐색 기술'($t=2.9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그림 1] 다문화청소년의 자립 기술 인식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자립 기술 수준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실력의 관련성이 발견됨

-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립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다문화청소년의 자립 기술 수준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실력과의 관계

(단위: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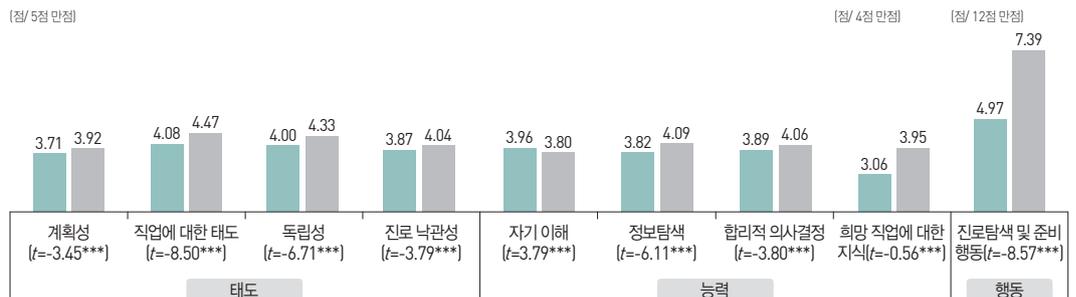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자원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진로탐색기술
외국 출신 아버지의 한국어 실력(N=117)	.24**	.20*	.27**	.32**	.25**	.34**
외국 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N=218)	.12	.16*	.17**	.13	.10	.22**

주 * $p<0.05$, ** $p<0.01$

0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로희망,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특성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성숙도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일반 청소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낮은 편임

- 진로에 관한 태도 관련 영역은 '직업 태도'(4.08점), '독립성'(4.00점), '진로 낙관성'(3.87점)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음³⁾. 진로능력 영역은 '자기 이해'(3.96점), '합리적 의사결정'(3.89점), '정보탐색'(3.8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은 평균 3.06점을 보임⁴⁾. 진로 행동 측면에서의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수준을 살펴 본 결과, 12가지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중 평균 4.97개를 수행함⁵⁾
 - 2019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본 검사지의 타당화와 표준화 작업에서 제시한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의 평균값과 비교한 결과, '자기 이해'를 제외한 모든 진로 성숙도 측정 항목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특히, '진로탐색 및 준비 행동'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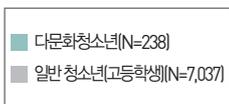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수준과 일반청소년(고등학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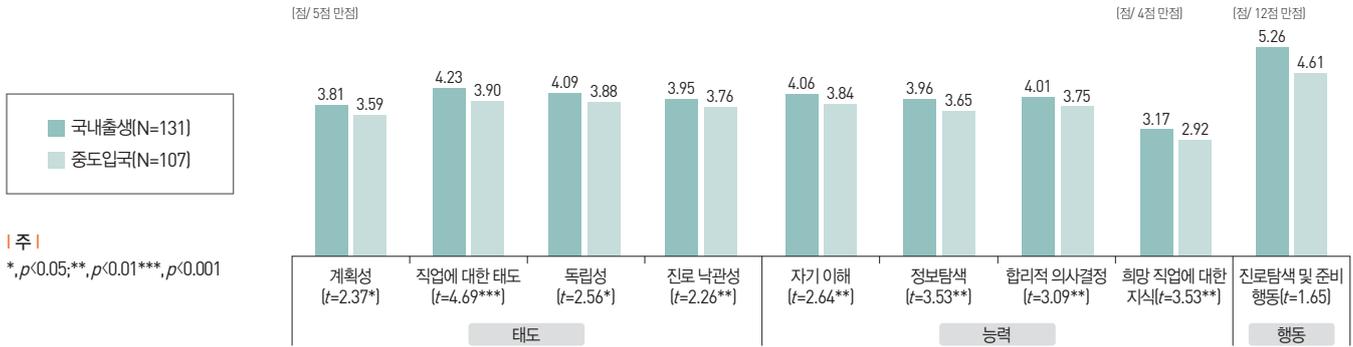
주 *** $p<0.001$

각주

- 3) 진로태도와 능력(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제외)의 응답범위는 1점(매우 낮다)~5점(매우 높다)으로 중간값은 3임
- 4)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의 응답 범위는 1점(전혀 아니다)~4점(매우 그렇다)으로 중간값은 2.5임
- 5) 진로행동은 12개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합을 구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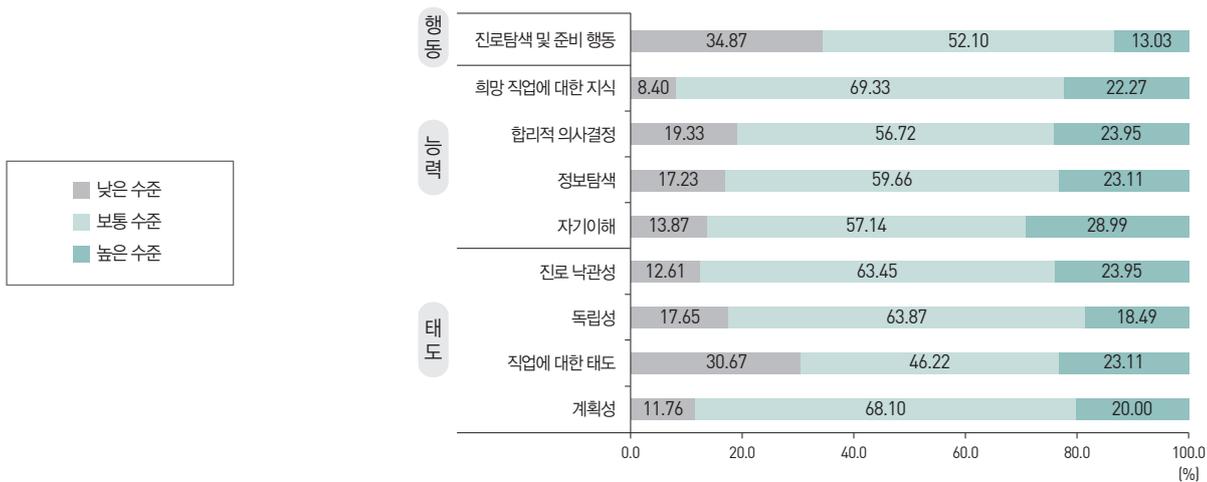
-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세부항목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보다 낮았음



[그림 3] 다문화청소년의 국내·외 출생별 진로 성숙도 수준 비교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성숙도에 관한 T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보통수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50%이상 높았음

- 진로 성숙도 세부 요인 중 높은 수준의 분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진로능력 요인으로는 '자기 이해'(28.99%), 태도는 '진로 낙관성'(23.95%)이 높게 나타남
- 진로 성숙도 세부 요인 중 낮은 수준의 분포가 가장 많은 요인은 진로행동 요인인 '진로탐색 준비 행동'(34.87%), 태도 요인인 '직업에 대한 태도'(30.67%), 능력 요인인 '합리적 의사결정'(19.33%)이 낮게 확인됨



[그림 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T점수 분포

다문화청소년은 IT전문가, 교사, 회사원 등의 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진단검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의 희망 직업은 'IT 전문가'(컴퓨터프로그래머 등) (7.6%), '교사'(7.1%) 및 '회사원'(7.1%)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5%가 희망직업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지만, 나머지 94.5%는 53가지 종류의 직업을 보고하여 다문화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확인함

<표 3> 다문화청소년의 희망 직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IT 전문가(컴퓨터프로그래머 등)	7.6	통·번역가	3.8	간호사	2.1
교사	7.1	요리사	2.9	경영·경제 관련 전문직	2.1
회사원	7.1	의사/한의사	2.9	공무원	2.1
뷰티 디자이너	5.5	크리에이터	2.9	항공기 승무원	2.1
경영자/사업가	4.2	음료 서비스원(바리스타, 바텐더)	2.5
과학·공학연구원	4.2	패션디자이너	2.5	모르겠다 혹은 아직 없다	5.5

주 | 5명 이상이 응답한 직업만 제시함

다문화청소년이 진로·적성 관련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대상은 친구나 선배임

- 본 연구의 진단검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중 67.6%는 진로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 다문화청소년이 진로·적성 관련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대상은 ‘친구나 선배’(87.9%)이었으며, ‘학교선생님’(60.5%), ‘시설 선생님’(22.9%)이나 ‘상담전문가’(22.9%), 그리고 ‘학원 선생님’(22.9%)의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이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진로탐색 준비 행동으로는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 대한 정보 탐색’(78.6%)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관심 있는 교육기관(학교, 학원 등)에 대한 정보 탐색’(65.1%), ‘진로적성검사’(52.1%), ‘진로설계’(4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체험’(32.8%)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상담 및 진로탐색 준비 행동 특성

구분		‘예’ 응답비율	구분	‘예’ 응답비율
진로상담 여부 [예: 161(67.6%), 아니요: 77(32.4%)]	친구나 선배	87.9	진로탐색 준비행동 (N=238)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 대한 정보 탐색
	학교 선생님	60.5		관심 있는 교육기관(학교, 학원 등)에 대한 정보 탐색
	시설 선생님(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2.9		진로적성검사
	학원 선생님	22.9		진로설계
	상담전문가(지역상담실, 학교상담실, 전화/사이버/문자 상담)	22.9		관심 있는 직업 종사자와의 대화
			관심 있는 진로(진학 또는 직업)와 관련된 기관 방문	
			직업 체험	

(단위: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성숙도와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실력의 관련성이 발견됨

-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성숙도는 높게 나타남

〈표 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성숙도와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실력과의 관계

	계획성	직업에 대한 태도	독립성	진로 낙관성	진로장벽	자기이해	정보탐색	합리적 의사결정	희망 직업지식	진로탐색 준비행동
외국 출신 아버지의 한국어 실력(N=117)	.31**	.21*	.13	.19*	-.20*	.20*	.26**	.24**	.34**	.14
외국 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N=218)	.15*	.15*	.13*	.15*	-.24**	.17*	.13*	.14*	.17*	.06

(단위: 상관계수)

주 |
*, p<0.05; **, p<0.01

04 시사점

참고문헌 |
김지선·이정애·김보옥·정익중(2018).
가정 외보호 청소년 지원 기술 평가 척
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청소년복
지연구, 20(2), 45-65.

- 다문화청소년의 자립과 취업 지원은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과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사이에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반에 걸쳐 한국어 교육 지원과 함께 진로 및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이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거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기술이 매우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그들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확인함
 - 한국 입국 전 또는 입국 초에 한국어 예비학교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지원체계의 확립과 공교육권 내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한국어 포함 이중언어 교육과 진로 및 취업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 경험과 이중언어 능력 장점을 모국어별 직업분야 심화 직업언어 교재(예: 공업러시아어, 상업베트남어 등) 교육을 통해, 국제화 직업능력으로 향상시켜 취업 도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담 기관 및 전문가 육성과 함께 다문화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변 속 영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정 민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